

“수능 폐지 · 대학 무상교육 추진해야”

전교조, ‘교육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 제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영재학교·과학고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자율형사립고·외국어·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단계적으로 평가체제를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되 장기적으로는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대학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프랑스로 파리 1~13대학과 같은 한국형 국립대네트워크 구축도 제시했다.

전교조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 불평등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불평등과 입시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원단체로서 내놓은 제안이다.

전교조는 “이제는 경쟁과 서열, 분리와 특권을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교육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공교육 정상화 등을 토대로 한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교조의 제안은 크게 △교육 불평등 해소 △고교 서열화 해소 △대학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의 영역으로 나뉜다.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는 대학 무상교육 실현을 제시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위한 대입 기회균형선발전형(고른 기회전형)이나 지방 학생 대상 지역균형선발전형 규모와 비율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 서열화 방안에서는 영재학교·과학고의 위탁교육기관 전환이 눈에 띈다. 중학교 졸업생이 곧바로 영재학교·과학고에 진학하지 않고 일반고생 가운데 과학영재 혹은 과학특기자를 선정해 과학교육위탁기관인 영재학교·과학고에서 가르치자는 것이다. 위탁교육을 마친 학생은 원적학교(일반고) 졸업생이 된다.

정부·여당·청와대도 검토하

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외국어·국제고 폐지도 거듭 주장했다. 중학교 단계에서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내세웠다. 우선 거점국립대 10곳을 제도적으로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프랑스 통합 국립대(파리1~13대학)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국립한국1~10대학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후 통합국립대가 각각 소재한 지역의 국립대, 사립대 등이 인적·물적 공유와 협력을 토대로 네트워크 체

제로 확대 운영하는지는 밑그림도 제시했다.

대입제도 개편에서는 수능이 핵심이다. 전교조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상대·절대평가 혼용체제에서 절대평가 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합격과 불합격 여부만 가리는 수능 자격고사화로 전환한 뒤 이에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내신 위주 학생부교과전형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15개 주요대의 경우 전체 선발비중의 6%에 불과한 해당 비중을 더욱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신과 비교과를 두루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현재 비중을 유지하되 문제로 지적된 비교과 영역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등을 통

해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 수시·정시 시행시기 통합 운영 주장도 나왔다. 그동안 상당수 고교 교사들이 수시모집이 9월에 진행되는 탓에 시기가 맞물리는 고교 3학년 2학기가 사실상 파행돼 공교육이 악화한다고 우려했었다. 이에 따라 수능은 12월 초로, 통합입시 시기는 고3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로 이동해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개편 논의 시 현장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뉴스1



드론 매력에 빠졌어요 16일 오전 경남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에서 열린 SK텔레콤 이동형 정보통신기술(ICT) 체험관 '티움(T.um) 모바일' 개관식에서 어린이들이 드론 조종사 직업을 체험하고 있다.

경찰, ‘아빠 찬스’ 전남대병원 채용부정 의혹 수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의 채용 부정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찰이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 등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쯤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아 전남대병원의 채용 부정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뒤 교육부와 전남대병원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까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내용이 교육

부의 감사로 인해 불거진 만큼 교육부에 감사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했고, 고발장 등에 접수된 서류를 분석하고 있다”며 “이와는 별개로 전남대병원에도 관련 서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대병원 노조는 지난달 6일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부정과 관련해 병원측의 감사결과와 공개를 촉구하면서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병원측이 감봉(1명)과 경고(11명) 등의 징계를 내린 12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관련 서류의 열람을 요청했지만 볼 수 없었다”며

“이에 채용 부정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아들과 조카 채용에 관여하는 등 ‘불법 채용비리’가 발생했으나 병원측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간부는 채용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조카에게 최고점을 줬다”며 “전남대병원에서 한 달 실습한 게 경력의 전부인 아들 채용 때도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광산구의회, 외유성 논란 호주연수 취소

광주 광산구의회가 ‘외유성 연수’, ‘혈세낭비 연수’ 논란을 빚은 해외연수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호주 연수를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의회는 광산구가 올해부터 시드니 한인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를 출장지로 정했다.

연수단은 구의원 11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4명으로 꾸려졌다.

하지만 광주 북구의회와 서구의회가 ‘거짓연수’와 ‘빚수 해의연수’로 공분을 사고, 정의당 광주시당 등도 광산구의회에 “외유성·혈세낭비” 호주 연수를 숙고하라”고 촉구하는 등 국외연수를 바라보는 여론이 악화되자 이날 회의 끝에 연수 취소를 결정했다.



이슈 판결

‘동성제자 성추행’ 농구코치

벌금형...“우발적 범행 고려”

법원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씨의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그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고소가 약 1년5개월이 지난 뒤에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도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피해자가 코치인 이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바로 고소하지 않은 것을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부모가 평소 이씨의 지도방식에 불만이 있었던 경로는 보이지만, 사실을 꾸며내거나 일부러 모해했다고 보

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사건이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추행보다는 학생들과 장난치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학교에 마련된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숙소에서 있던 농구부 학생 중 일부가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프로선수 출신으로 사건 당시에는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였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추행은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며 “이씨는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부인만 하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평생을 농구인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았는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와있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데치로공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은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증기발견, 자폐치료 중인 민혜군

일반 건강검진

성애인형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검진